

20년간 선수별 맞춤형 지원...세계 곳곳서 결실

종목·선수별 맞춤형 제품 지원
도핑 걸릴 땐 수입 2배까지 보상
베이징올림픽 146명 21개 메달
女빙속 500m '첫 흑인 金' 잭슨
황대헌·이상화 등 스타들 성과

“각별하게 그리고 종목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엘리트 스포츠와 관련 종목의 선수를 후원하고 이를 브랜드 인지도와 가치를 높이는데 활용하는 ‘스포츠 마케팅’은 오늘날 다양한 산업에서 만날 수 있는 기업 활동이다. 특히 매년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스포츠 마케팅은 무척 유용하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뉴트리션(영양) 전문기업인 유사나의 스포츠 마케팅은 역사와 규모,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1999년 시작, 20년 넘는 역사 자랑

유사나가 스포츠 종목과 선수를 공식적으로 후원한 것은 미국과 캐나다의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팀이 시작이다. 조직적으로 후원한 역사가 20년이 훌쩍 넘는다. 현재 유사나가 개발한 스포츠 후원 프로그램 ‘유사나 스포츠 선수’(USANA Athlete s)를 통해 매년 전세계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에게 제품을 지원하고 있다.

‘유사나 스포츠 선수’ 프로그램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2월에 열린 베이징동계올림픽의 경우 유사나가 후원한 6개국 146명의 선수들이 메달 21개(금메달 8개, 은메달 8개, 동메달 5개)를 기록했다.

이번 베이징올림픽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첫 흑인선수인 미국의 에린 잭슨을 비롯해 평창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미국 루지 대표 크리스 매즈더, 스키 알래스 페레이아,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 브리트니 보위 등이 장기간 유사나의 후원을 받고 있다. 그외 캐나다 아이스하키 메건 미



유사나가 2017년부터 6년째 후원하고 있는 베이징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쇼트트랙의 황대헌 스포츠동아DB

켈슨, 캐나다 봅슬레이 대표 알렉산더 코파츠, 미국 레슬링 대표 세라 힐데브란트와 제이든 폭스, 프랑스 핸드볼 대표 엘리스 피노, 미국 이종격투기 겸 레슬링 선수 사라 맥만, 캐나다 육상 선수 샘 에파 등도 ‘유사나 스포츠 선수’ 프로그램 후원 선수다.

우리나라에서는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쇼트트랙 황대헌 선수가 있다. 유사나는 2017년부터 황대헌 선수를 후원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스노보드

에서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메달을 따낸 ‘배추보이’ 이상호도 유사나 후원 선수이다. 또한 ‘바람의 부자’로 불리는 한국야구의 레전드 이종범 감독(LG 트윈스 퓨처스)과 이정후 선수(키움 히어로즈)는 4년째 유사나의 공식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 사이클 장경구, 복싱 오연지, 아이스댄싱 민유라, 유도 김원진 선수 등을 후원하고 있다.

특히 국내 3개 프로스포츠 팀의 뉴트

리션 후원사는 유사나가 유일하다. 현재 프로야구 KT위즈와 한화이글스, 프로농구의 한국농구연맹(KBL)과 KT소닉붐, 프로축구 성남FC 후원을 맡고 있다.

●후원시 금지약물검사 철저

이렇게 유사나의 스포츠 후원이 다양한 종목과 많은 선수에 걸쳐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유사나 스포츠 선수’ 특유의 종목, 선수별 맞춤형 지원 덕분이다. 유사나 대표 제품인 종합 멀티비타민 헬스팩을 기반으로 종목과 선수에 따라 다르게 제품을 구성해 후원한다.

프로야구에는 오랜 시간 에너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뉴트리밀 액티브와 액티브 미메탈 드링크 믹스를 지원하고 있다. 종목 특성상 추위와 빛반사가 심한 설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스노보드 이상호 선수에게는 면역과 눈건강을 위한 프로글루타민과 비전엑스 디에스를 제공한다.

선수들이 도핑 여부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원물품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미국풋볼리그와 선수협회(NFL/NFLPA), 메이저리그와 선수협회(MLB/MLBPA)가 금지하는 약물과 관련 제품테스트, 시설조사를 거치고 있다. 만약 지원물품이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금지성분으로 양성판정을 받으면 해당 선수에게 최대 100만 달러까지 수입의 두 배를 보상하는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물품 지원 외에 ‘유사나 브랜드이’ 등 후원선수와 구단이 팬들과 함께 즐기면서 참여하는 행사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올해는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헬스 오브 더 매치’(Health of the match) 팬 투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홍광화 유사나코리아 지사장은 “유사나 스포츠 선수 프로그램 선수들은 세계 무대에서 폭넓은 재능과 경험, 스포츠맨십으로 최고의 전문성을 증명했다”며 “각종 대회에서 유사나의 위상을 높이는 선수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몰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거북목증후군 방지하면 목디스크

스마트폰 대중화로 거북목증후군에 시달리는 환자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거북목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최근 3년 간 46.7% 증가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고개를 숙이면서 경추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C자 형태의 정상적인 경추 모양이 일자 또는 역 C자 형태로 변형되는데 이를 거북목증후군이라고 부른다.

거북목증후군 증상이 나타나면 목과 어깨에 지속적인 통증을 겪을 수 있다.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건망증 등 신경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증상이 장기화되면 경추 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거북목증후군이 의심될 경우 정형외과에 내원해 전문의의 진료 및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문진 및 병력 청취,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실시한 다음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의 비수술 요법으로 거북목증후군을 개선할 수 있다.

신경차단술과 도수치료는 마취, 절개 등이 필요없는 비수술적 치료다. 그 중에서도 신경차단술은 특수영상 치료장비 C-ARM을 통해 병변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염증 부위에 정확하게 약물을 주입해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양재본정형외과 임재욱 원장



명지병원, 어깨 재활 권위자 이강우 교수 영입

명지병원은 재활의학 권위자인 이강우 교수를 영입했다. 이강우 교수는 삼성서울병원 재직 당시 이진희 삼성그룹 회장의 주치의를 담당했고 BS ‘명의’ 편에 출연해 주목을 받았다. 수술 없이 재활치료를 통해 오십견을 비롯한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시키는 권위자로 매년 3000여 명에 달하는 환자 진료 경험과 SCI급 논문을 포함해 약 300여 편의 자료를 발표했다. 명지병원은 이강우 교수가 아시아 최초로 ‘견주관절 선구자상’을 수상한 정형외과 이용걸 교수와 함께 어깨질환 수술과 재활 분야에서 좋은 임상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우 교수

아이디병원 유튜브 구독자 10만명 돌파

미용의료 전문 아이디병원의 유튜브 채널 ‘아이디병원-Beauty Wonderland’이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 실버버튼을 받았다. ‘아이디병원-Beauty Wonderland’은 MZ세대를 대상으로 미용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다. 아이디병원 의료진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랫미인 출신 허예은이 함께 출연하고 있다. 주력 콘텐츠는 ‘프로닥터 숏티뷰’와 ‘성형백과’다. 미용의료 관련 궁금증을 원장단이 설명하고 후기 및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다룬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자생한방병원 “뇌경색 환자, 침 맞으면 사망 위험 줄어”

척추관절연구소 최성률 한의사팀 “합병증 발생 낮춰 생존율 높여”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의 최성률 한의사팀은 허혈성 뇌졸중이 침치료를 받으면 사망 및 합병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뇌졸중은 최근 통계청 사망원인 중에 4위를 차지한 질환이다. 한의학에서 중풍

이라고 불리는 뇌졸중은 뇌혈관 이상으로 뇌 조직이 손상되며 발생한다. 크게 뇌혈관이 터져 생기는 출혈성 뇌졸중(뇌출혈)과 뇌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뇌경색)으로 구분된다. 이중 허혈성 뇌졸중은 재발이 빈번한데 1년 내 재입원율이 약 31%나 된다.

최성률 한의사팀은 국가표본 코호트(NHIS-NSC)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허혈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침 치료가 사

망률과 합병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했다. 허혈성 뇌졸중에 대한 침치료는 장기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사망률, 합병증 등에 대한 치료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연구팀은 이를 반영해 침 치료와 뇌졸중 예후에 대해 시간의존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침치료를 사망률이 대조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발생률도 침치료가 낮았다. 또한 위험비도

침치료가 대조군에 비해 사망, 합병증에서 낮게 나타났다. 위험비는 침치료를 받은 환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침치료가 합병증 발생률을 낮춰 생존율을 높인 것으로 해석했다.

최성률 한의사는 “이번 연구는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허혈성 뇌졸중 치료에 대한 침치료의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 ‘Healthcare (IF=1.58)’ 4월호에 실렸다. 김재범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5월 12일 (목) 음력: 4월 12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현실에서 모든 것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뒤엎졌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나가며 금전문제도 해결되니 경솔한 판단보다 겸허한 마음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명예가 따르고 금전적인 여건도 아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잠재적 자아와 대화하며 이상을 꿈꾼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대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진하라.	몸과 마음이 균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황제수가 있는 날이다. 열심히 움직여야 하는 날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쉽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운이기도 하다.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기인되며 모함이나 질투로 인하여 고립되는 상태에 놓인다. 한 분야에 몰입하여 타의 시선이나 관심에 개의치 않는 것이 특징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냉정 상태를 심각하게 몰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과정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복잡한 인간관계도 청산하라.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주변인을 믿지 마라.	함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은 법이다. 오늘은 어떠한 노력도 통하지 않는 때이다. 당신도 기력의 회복과 길한 운세를 기다려야 한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사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직업상의 변동과 문서와 연관된 일에서 이득을 찾으려 하는 때이므로 일관된 목표의식을 갖고 주위를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크게 이득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현상유지만 도모할 뿐이다. 취침 시 서남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매사 모든 일이 될 듯 할 듯 안 된다.						

오늘의 날씨				12일(목)			
서울	20/20	인천	20/0	춘천	30/30		
강릉	30/30	대전	30/30	전주	30/30		
광주	30/30	대구	30/30	부산	30/30		
창원	30/30	제주	30/3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17/24		17/22	날씨	최저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23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